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14년 9월 15일

제 15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소 :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5층 3호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클럽 회원 인천 아시안게임 방송매니저로 활약

배구 핸드볼 펜싱 야구카바디 등 14개 종목 경기장 운영 총책

KBS 이세진 김규홍 김성웅 김지문 정도영 황량
MBC 정영환 고창근 SBS 손석기 박영만 TBC 박태웅



방송 경력자들이 인천 아시안게임 현장 곳곳에서 맹활약 중이다.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 주관방송사(IHB) 김성길(전 KBS) 대표와 조직위원회(IAGOC) 손상진(전 KBS) 미디어본부장이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펼쳐지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6개 종목별로 '방송매니저'를 두기로 함에 따라 백전노장들의 경험이 귀하게 쓰이게 되었다.

100여 명의 경력자들 가운데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참가자는 조직위 메뉴 매니저를 맡고 있는 KBS 출신 김성웅(농구:화성실내체육관) 회원을 비롯해 IHB 방송매니저로 김규홍(배구A:인천 송림체육관), 김지문(핸드볼A:인천 선학핸드볼경기장), 이세진(펜싱:고양체육관), 정도영(야구:서울목동야구장), 황량(승마, 근대5종:인천 드림파크), MBC 출신 고창근(체조:인천 남동체육관), 정영환(핸드볼B, 탁구AB:수원

이들은 경기장을 일컫는 메뉴 운영 책임자인 방송매니저(BVM:Broadcast Venue Manager)로 위촉되어, 4월 18일과 8월 4일 워크숍, 9월 11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부여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담당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방송매니저는 기술매니저, 연락 담당자 등과 함께 팀을 이루어 경기 운영과 방송제작 관련 사항, 국제신호의 송출, 제작진 관리는 물론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enter, 국제방송센터)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중책으로 해당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방송 관련 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권을 갖고 모든 관련 인원에 대한 정보 전달을 전담한다.

한편 8월 22일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 E-biz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종목별 장내 아나운서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교육에서는 우수호(전 KBS) 아이

방송매니저는 경기운영 방송제작 송출 및 관리
경기장 방송 관련 사항 주요 의사 결정권 가져

우수호 표영준 회원, 장내 아나운서 대상 직무교육 실시

체육관), SBS 출신 박영만(배구B:인천 상록수체육관), 손석기(축구C:안산 와스타디움), TBC 출신 박태웅(비치발리볼, 카바디:송도글로벌체육관) 회원 등 11명이다.

스포츠TV 대표와 표영준(전 KBS) 회원이 '스포츠경기와 중계에 대한 이해'와 '공공장소에서의 언어 조건'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아나운서 후배들의 눈부신 활약상 기대한다

2014 브라질 월드컵이 6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펼쳐졌다. 공동중계에 나선 지상파 3사는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자 총력을 기울였다.

KBS는 새로운 콤비 조우종 아나운서와 이영표 해설위원을 비롯해 최승돈, 이재후, 이광용 캐스터와 김남일 해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MBC는 김성주·안정환·송중국 3인 방송을 주축으로 김정근, 김나진

캐스터와 김소영, 이재은 아나운서가 브라질에서 활약했고, 국내에서는 허일후, 김초롱 아나운서가 하이라이트 방송을 진행했다. SBS는 현지에서 배성재·차범근 콤비와 함께 김일중 캐스터가 중계를 담당했고 MC로 신입 장예원 아나운서를 파견했다.

9월 19일 개막하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아나운서들의 활약상이 기대된다.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우리말 콘서트' 주관 아나운서연합회에 성금 전달
KBS 새 여성 아나운서실장과 부장에게 축하케이크 선사



신동진 연합회장을 격려하는 김동건 회장 선후배가 모여 우애를 나누는 흐뭇한 자리 여성시대 주역들을 축하하는 강영숙 고문

3분기 정례모임 8월 26일 여의도 열빈서 45명 참석

3분기 모임은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즐거웠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례모임이 김동건 회장을 비롯한 전직 29명, KBS 아나운서실 운영미 실장 등 현직 15명, 명예 회원인 한국방송인동우회 이상춘 이사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6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열렸다.

김동건 회장은 "갑작스런 소낙비에도 많이 와주셔서 고맙다. 축하할 일도 많은 오늘, 여러분이 있어 행복하다."라고 인사했고, 정영숙 회원의 시낭송(김종기의 '눈개')에 이어 박민정 사무총장이 참석자의 면면을 소개했다. 황우겸 고문이 건배사에서 조직원의 의무인 참여를 강조하며 회원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 후 회원들은 식탁에 놓인 한국차인협회 사무총장 전우백 회원이 가져온 잡지 '차인'을 들춰 보기도 하고 담소를 나누며 만찬을 즐겼다.

신동진 아나운서연합회장이 9월 3일 개최하는 '아나운서들과 함께하는 우리말 콘서트'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자 김동건 회장은

임에 왜 진작 오지 않았나 싶다."라고 소감을 피력했고, "그 동안 참석하지 못한 게 한스러울 만큼 뿌듯한 자리다."라고 말문을 연 이정부 회원은 지난 번 책을 낸 이후 격려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박찬숙 부회장의 말처럼 '차연스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듯 귀가 편한 모임'의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존칭 생략) 강성화(KBS), 강영숙(전 MBC), 김규홍(전 KBS), 김동건(전 KBS), 김상준(전 KBS), 김용신(CBS), 김준우(OBS), 김지원(KBS), 맹관영(전 KBS), 박민정(전 MBC), 박영주(KBS), 박종세(전 TBC), 박찬숙(전 KBS), 성대석(전 TBC), 성선경(전 DBS), 송현식(전 KBS), 신동진(MBC), 오승훈(MBC), 유지철(KBS), 윤영미(KBS), 이계진(전 SBS), 이규원(KBS), 이병혜(전 KBS), 이세진(전 KBS), 이성화(전 TBC), 이상춘, 이정부(전 KBS), 이형균(전 MBC), 이혜옥(전 KBS), 이후재(전 KBS), 임국희(전 MBC), 임수민(KBS), 전우백(전 KBS), 전인석(KBS), 전찬희(국방TV), 정연호(전 MBC), 정영희(전 MBC), 정



▶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수민, 한상권, 박민정, 채영신, 전인석, 황인우, 이병혜, 윤영미, 성선경, 유지철, 정연호, 김상준, 이규원, 이세진, 이정부, 박찬숙, 이계진, 황량, 송현식, 지영서, 전찬희, 전우백, 김용신, 오승훈, 이혜옥, 김준우, 박영주, 신동진, 김규홍, 이형균, 김지원, 정영숙, 이성화, 김동건, 박종세, 황우겸, 임국희, 맹관영, 성대석, 조항리

후원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신임 윤영미 KBS 아나운서실장은 "8월 4일 발령 이후 후임 부장, 팀장 인사 등으로 분주했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고, 강영숙 고문은 KBS 여성 실장과 2명의 여성 부장을 위해 축하 케이크를 선사했다.

KBS 이사인 이병혜 회원은 "KBS에 한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상사는 돌고 도는 것. 선후배 사이에 좋은 관계 회복하며 신의와 우애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처음 참석한 한국언론인회 회장 성대석 회원은 "시낭송으로 시작하는 이 품위 있는 모

홍숙(전 MBC), 조항리(KBS), 지영서(전 KBS), 채영신(전 KBS), 한상권(KBS), 황량(전 KBS), 황우겸(전 KBS), 황인우(전 KBS)

4분기 연말 모임은 오는 12월 10일(수) 오후 6시 장충동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주최 '2014한국아나운서대회'로 대신한다.

다음엔 12월 10일(수) 오후 6시 장충동엠베서더호텔 아나운서연합회 주최 '2014한국아나운서대회'에서 만나요.

제51회 '방송의 날' 특집

'방송산업 경쟁력 높여 방송콘텐츠 일등국가 만들자'

9월 2일 여의도 63시티에서 방송의 날 축하연



뒤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상권 아나운서, 김창욱 대전 MBC 사장,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송현식, 전우벽 차인협회 사무총장, 박용호, 황량, 정도영, 김재익, 박영웅, 김상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위위원장, 김인규 전 KBS 사장, 박찬숙 한·터치선협회장, 김규홍, 이병혜 KBS 이사, 이혜옥, 채영신 정심초 교감, 김동건 클럽 회장, 강영숙 예지원 원장, 김영길, 배덕환, 박민정 클럽 사무총장, 황인우, 윤영미 KBS 아나운서실장

한국방송협회(협회장 안광한 MBC 사장)는 방송의 날을 하루 앞둔 9월 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여의도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신동호(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축하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방송인들이 방송 콘텐츠 일등 국가를 만

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한다면 정부도 규제 완화 등으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송의 날은 1947년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으로부터 'HL'이라는 독자적인 호출부호를 부여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KBS <정도전> 제41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KBS 1TV 사극 <정도전>이 제41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프로듀서상(강병택 PD)과 작가상(정현민 작가)을 차지했다.

방송의 날인 9월 3일 오후 3시 KBS홀에서 도경완(KBS), 이진(MBC), 배성재(SBS)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MBC를 통해 생중계된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통계 TV부문 전주MBC <판소리명창 서바이벌 광대전廣大戰Ⅱ>, 생활정보 라디오

부문 MBC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등 30개 부문 29개 작품이 작품상을 받았다.

개인상은 아나운서상 KBS 한상권(<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취재파일 K>) 아나운서를 비롯해 라디오진행자상 CBS 배미향 PD(<배미향의 저녁스케치>), TV진행자상 탤런트 김상중(SBS <그것이 알고싶다>), 앵커상 CBS 하근찬(<하근찬의 아침종합뉴스>) 등 21명이 수상했다.

방송대상 아나운서상 수상자 KBS 한상권

영광스러우나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까마득하게 느껴집니다.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방송인이라면 누구라도 평생에 꼭 한번 받아보고 싶어 하는 영광스러운 상이라 더욱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아들 3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1995년 KBS 공채 21기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미숙한 놈을 잘 다듬어 써보겠다고 아나운서로 뽑아 잘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도 떠오릅니다.

저는 아나운서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KBS에서 배웠습니다. 온발음, 자고저, 3분 스피치…… 1TV <뉴스 7>을 통해 뉴스 캐스터로서 보람을 맛보았



고, <역사 스페셜>에서 참다운 방송의 재미를 어렵듯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게감을 덜어내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새로운 역할에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많은 이야기가 쌓여갑니다.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영광되고, 또 때론 아리게 서러웠던 그 이야기들은 이내 역사가 됩니다. 사람은 정작 행복할 때는 행복한 줄 모르고 그 행복을 모두 흘려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다고요. 매순간 제게 주어지는 복된 선물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저만의 기록으로 갈무리해가겠습니다.

언젠가 후배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칼럼

우리말 최후의 보루 아나운서

성대석 (사)한국언론인협회 회장



서울시언론문화상 심사위원장, 국기원로회의 위원 1964년 TBC 입사 후 기자로 전직 (TBC 석간, KBS 9시뉴스) 앵커, 주미특파원, 홍보실장 역임

옛말에 일풍신(風身神)이 언변(言辯)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란 첫째 인물이 좋아야하고, 둘째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의 아나운서를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아나운서들은 일단 인물(외모) 좋고, 말 잘

하고, 여기에 말을 밖으로 뽐어내는 목소리까지 좋으니 말이다. 각 방송사들이 아나운서를 뽑을 때 실력과 함께 이 같은 것들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발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말이란 언어의 구성요소인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가운데 하나인 음성언어를 가리킨다. 언어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기본적인 척도이기도 하다.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이런 말(언어)을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장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아나운서들을 보면 정작 아나운서가 된 후에는 말에 대한 공부를 하기보다는 남과 비교하고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하다. 필자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차적인 것보다는 남보다 출중한 외모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니 업무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말, 즉 기발한 말, 재치 있

는 말, 절제된 말, 품위 있는 말들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아나운서답지 않을까 한다.

이 대목에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다. 어느 뉴스 아나운서는 자기 앞에 놓인 프롬프트에 써 있는 글자는 또박또박 잘 읽기는 하는데 말은 하지 못한다. 그 아나운서는 프롬프트에 써 있는 글자를 시청자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일 것이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프롬프트에 있는 글자만 뜯어 읽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글의 장단·고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면 적용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특히 후배 아나운서들이 우리말의 장단·고저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좀 더 철저히 인식하고 표준 한국말을 익히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병들어 가는 우리말을 정화시키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

아나운서로서의 완성은 입사시험을 치르고 방송사에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입사 후 입사시험 못지않은 각고의 노력으로 제대로 된 우리말을 내 것으로 만든 뒤에야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좀 쑥스러운 말이지만 아나운서클럽 김동건 회장은 명실공히 아나운서로서 완성을 이룬 분이고 비록 일주일에 한번, 사회자로서 짧게 멘트를 구사하지만 <가요무대>에서 펼쳐지는 그의 말은 이 시대의 표준어가 아닌가 생각한다.

Viva! Once an Announcer, Always an Announcer.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

문체부 주최 아나운서연합회 주관 9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 옹극장서 개최



왼쪽부터 장위안, 로빈, 크리스티나, 오연중, 조은유, 이지민, 양현민, 김슬애, 이재은 (사진 아나운서저널 제공)



노랫말이 아름다운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을 허일후, 유승우, 김소원과 함께 불러요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중덕) 주최, 한국어아나운서연합회(회장 MBC 신동진) 주관으로 9월 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옹극장에서 열렸다.

문체부 김희범 제1차관과 김중 제2차관,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사)한국어아나운서클럽 김동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아나운서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청소년이 아름다운 우리말의 소중함을 깨닫고 바르고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말 수호천사로 활동하는 연합회 소속 12명의 아나운서들은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 제작물) 공모전 심사를 맡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펼치고 있는 경희여중 강용철 교사, 가수 유승우, 미술사 이재민 등 출연자들과 함께 행사장을 가득 메운 800여 명의 청소년에게 2시간에 걸쳐 흥겹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김정근(MBC), 정다운(KBS) 아나운서 진행의 1부는 레이저를 활용한 P.I.D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시작되어 동덕여대 의상학과에서 한글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의상 패션쇼, 탤런트 오재무 군과 김소현 양에 대한 우리말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식, 바르고 고운 말 사용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다.

허일후(MBC), 김소원(SBS) 아나운서가 진행한 2부에서는 <슈퍼스타K> 출신 유승우 군이 청중과 함께 아름다운 가사로 만든 노래를 불러 많은 호응을 받았다.

오연중(KBS), 유혜영(SBS) 아나운서가 진행한 3부에서는 경희여중 강용철 교사가 출연해 강다솜(MBC) 아나운서와 함께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전했고 이재민의 마술쇼와 소년공화국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2014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콘서트'는 청소년에게 '말은 내 얼굴이고 인격이며 나의 미래'임을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눈초 掣初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5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외래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 외래어 표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규향

- 고려대학교 국문과 졸업
- KBS 아나운서실장
- KBS한국어연구회 2대 회장
- 국어심의위원(문교부 문체부) 역임

현대자동차에서 신형 차 '소나타'의 광고를 했을 때 고객들의 거센 항의에 못 견뎌 차명車名을 '쏘나타'로 즉시 바꾸었다. 외국어는 화자話者와 청자聽者가 다른데 비해 외래어는 외국에서 이민을 와 한국어의 음운을 따른 국어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같다.

"Jesus[지저쓰]→예수, John[잔]→요한, Peter[피터]→베드로, Paul[폴]→마오로" 처럼 발음상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외래어의 속성이다. '어나운서'는 외국어요, '아나운서'는 외래어다. 이는 마치 이민을 온 사람이 김치와 같은 한국음식에 동화되어 입맛이 바뀌는 것과 같다.

외국어에서는 외래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미국인은 HYUNDAI[현대]를 [하이운다이]라고 한다. 또한 최崔는 [초이](美), [쇼](佛), [호이](獨), [츄이](中), [사이](日)로 자국민의 입맛에 맞게 발음한다.

"KBS[케이비에스], MBC[엠비시],

둘째 외국어 학자의 참여로, Bus[bʌs]의 경우 [b[비], [시], s[시] 처럼 영어의 음소音素에 국어의 음소를 대응식對應式으로 하여 외국어표기법이 된 셈이다.

셋째 첫소리 자음의 경음硬音을 회피한 표기 현상은 된소리의 인상을 주는 일본어에 대한 배타적 애국심과 된소리는 언어순화에 역행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편견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경음 위주의 아름다운 프랑스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어는 경음으로 들리는 청각영상聽覺映像이 있을 뿐 표기상 [빠, 뻐, 뽀, 뽀, 뽀] 이외에는 된소리가 없는 언어이다.(예 얼굴[가오] / 언덕[오가][오까]) 또한 조선통신사들의 일본어 교과서인 '첩해신어捷解新語'에 경음의 등장으로 보아 일찍이 우리 선조들의 된소리에 대한 선호를 짐작할 수 있다. 해방 후에는 'can'→'깡통', 'gang+패거리'→'깡패'의 예도 있다.

대하여 조선 한자음을 쓰지 못하고 일본어로 쓰게 한데서 비롯되었다. 갑자기 '동경유학생'이 '도-쿄 유학생'이 된 것이다. 당시 경성방송국 심우섭沈友燮(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만형) 방송과장은 이에 항거의 뜻으로 사표를 냈다.

현 표기법의 피해자는 신문사나 출판사와 같은 문자언어 종사자들이 아니며 아나운서들이다. 특히 다음은 80년대 초 야구중계 아나운서로서 당시의 고충을 대변하는 한 대목이다. '센타 앞에 안타' / '센터 옆에 언터'. 여기서 'ㄷ'를 'ㄴ'로 결사적(?)으로 발음한 것은 'ㄷ' 모음의 인상이 짙은 '다나까, 나까무라' 같은 일본식 발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아파트'가 일본어 '아빠-또' 때문에 '어퍼트'로 표기되었었는데, 이 무렵 와우獸牛 '어퍼트'가 없어(붕괴)졌다. 원래 '라디오'였던 '라디오'란 표기도 구개음화로 일본어인 '라지오'로 변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중계 아나운서들은 입에 익숙했던 '피차, 쎄칸드 베이스맨, 쎄타필드……'를 쓰지 못하고 발음이 불편한 '피쳐, 세컨드 베이스맨, 센터필드……'를 벗어나기 위해 야구용어를 '투수, 이루수, 중견수'로 바꾸었는데, 모순되게도 일본식 야구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소아병小兒病적인 사고였다. '나라, 바다, 이마, 가마' 등 'ㄷ' 모음은 국어에도 많지 않은가. 아나운서도 아나운샤가 더 외래어답다.

내가 야구캐스터로 데뷔 시절 선배들은 'third[사-도](일본식 발음)의 초성 'ㅅ'을 피하기 위해 'third[서드] 앞 땅볼'이라고 하지 않고 '더드 앞 땅볼'이라고 하였다. 축구용어 'throwing[스로잉]→[드로잉]의 잘못도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스포츠'라는 아나운서의 발음을 인정한다면 '배추'를 '배쑤'로 고쳐야 한다던 KBS 심의실 S위원의 악몽 같은 역지의 지적이 떠오른다.

필자는 1987년 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원의 전신)에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외래어표기 용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나는 활자매체 종사자들인 다른 위원들과 전혀 의견이 달랐으므로 위원이 아닌 이론 앞에서 투쟁하는 투사의 모습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다.

"오브저버(observer)→옵서버, 캐딜락→캐딜락, 코냐크→코냐크, 파르티잔→빨치산, 점퍼/잠바·셔츠/샤쓰(복수 표기)" 이러한 전거典據는 "까쓰, 뽀쓰, 쎄일, 쎄타, 스포쓰, 카나다……"를 비롯한 현 표기법 개정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심경에서였다.

외래어표기법통일안(1941년)의 원안대로 '외래어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와 같은 표음주의의 정신에 따른다면 꽤도난 마快刀亂麻처럼 오랜 숙원이 명쾌하게 풀릴 것이다. 그러나 출판계와 신문사 등의 문자언어 기관에서는 현 표기법에 대해 현장에서 큰 불만을 절감하지 못하므로 현재로서는 외래어 표기법의 개정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현 외래어는 표기법만 있고 발음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표기대로 읽어야 한다는 구속력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자장면'을 '짜장면'으로 고쳤듯이 현실음을 중시하십시오." 학생들 질문에 대한 나의 근색한 답변이다.

KBS 아나운서실은 50년대 말부터 사견을 [사:견], 헌법을 [헌:뽀]으로 전향적으로 발음, 한글확화에 앞서갔다. 표기는 문자요 발음은 말로, 말 다음에 문자가 생겼다는 언어학 원론原論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간방송 KBS 아나운서들은 국립국어원과 관계없이 현장 언어 중심의 새로운 외래어표기법을 한국어연구회에서 독자적으로 제정, 한국 정통 음성언어의 사실임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외래어란 외국에서 이민 와 한국어의 음운을 따른 국어 발음상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외래어의 속성

소/牛나 타는 차 '소나타(외국어)' 사람이 타는 차 '쏘나타(외래어)' 이것이 바로 그 좋은 예가 아닌가?

조선총독부의 국어말살정책, 한글학자들의 편협한 애국심 등의 영향으로 외래어표기법이 흔들려왔다

외래어 표기는 선先 발음현실조사 후後 표기법제정의 대원칙과 1941년 제정된 외래어표기법통일안 원안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와 같은 표음주의를 따른다면 오랜 숙원이 명쾌하게 풀릴 것

SBS[에스비에스], 가스, 버스, 센터, 스포츠, 배지(Badge), 골대(Goal Post), 캐나다……". 현 외래어 표기는 외국어도 외래어도 아니며 뜻을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편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국어로 받아들여 "뽀쓰, 쎄클, 뽀뽀, 필림"으로 표기한다.

현 외래어 표기법(1941년 제정)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개악改惡의 결과물이다.

첫째 표기와 발음이 쉽다는 지나친 한글 우월주의 때문에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발음교육이 없다. 이에 따른 국어학계의 발음경시 풍조로 언중言衆의 폭넓은 선先 발음현실조사 후後 표기법제정이란 대원칙을 무시하였다.

넷째 외래어의 개념에 이해가 없는 언중과 일부 아나운서들조차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탈렌트→텔런트' 처럼 영어식(현지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오해는 현 표기법 개정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다섯째 중국어의 경우는 한글로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를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한글 전용주의자들의 한자 사용 방지책이었다. 延辺[엔벤]은 짐작이 되지만 延吉[엔지]나 靑島[칭따오]와 혼동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지음現地音주의는 어떤 연유 때문이었을까? 이는 조선총독부가 조선어 말살정책을 쓸 때 경성방송국(KBS의 전신)에 지령을 내려, 일본어 고유명사에



방우회 주관 '물망비' 기념식

9월 26일 오후 2시 KBS 본관서 개최

(사)한국방송인동우회(회장 한영섭)가 주관하는 물망비勿忘碑 기념식이 9월 26일 오후 2시 KBS 본관에서 열린다. 1942년부터 1943년에 걸쳐 단파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황을 전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킨 방송 선인先人들의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을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행사이다.

방송가 소식

| 특별 기고 |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을 맞이하며

OBS 아나운서협회장 김준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OBS가 큰 역할과 비중 차지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아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과 보완점을 심층 취재·보도하고 특집 프로그램과 캠페인 등을 통해 붐 조성에 앞장서왔다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9월 19일부터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1986년 서울과 2002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아시아인의 축제다.

인천 경기지역 지상파방송 OBS는 인천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를 기다리는 마음과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해 정명정명 600년에 이어 올하는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OBS는 주목받는 '인천' 과 함께하고 있다.

OBS는 그동안 재정과 교통 등 인천 아시안게임의 준비과정, 문제

점과 보완점을 심층 취재하고 보도해, 대회를 치르는 지역의 방송사로서 보도적 기능과 역할에도 충실해왔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 영상을 통해 각 부문별 종목과 국가대표 선수들을 소개하고 특별한 도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천시와 함께 각 지역별로 5차례 마련한 특집 공개방송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한마음 노래자랑>에서는 공연 사이사이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인천 각 지역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아침에는 <생방송 OBS>, 저녁엔 <으랏차차 7시>를 통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여러 종목, 특히 공수도, 비치발리볼, 우슈, 정구, 크리켓 등 조금은 생소한 종목들과 선수들도 자세히 소개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회 기간에는 <생방송 OBS>를 통해 대회 주요 경기결과와 예상을 비롯해 화제가 되거나 숨은 현장을 찾아 다각도로 방송할 예정이다.

돌이켜보면 2007년 개국 당시엔 OBS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큰 역할과 비중을 갖게 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OBS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스포츠가 보여준 의미는 적지 않다. 보통은 영광스러운 결과만을 떠올리지만, 이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본연의 순수한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이 그런 대회가 되기를, 유독 힘겨운 2014년의 대한민국에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대회 종료 2주 후부터 일주일간 펼쳐지는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도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새 실장에 인재개발원장을 지낸 윤영미 아나운서

아나운서1부장 이규원 2부장 한상권 한국어연구부장 임수민



▶왼쪽부터 윤영미, 이규원, 한상권, 임수민

윤영미 아나운서가 8월 4일 아나운서실장에 취임했다. 윤 실장은 1983년 공채 10기로 입사, <하나둘셋 TV 유치원>, 라디오 <가위 바위 보>을 비롯해 오랫동안 TV 뉴스를 진행했으며 KBS인재개발원장을 지낸 후 중앙

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을 수료했다. 후속 인사로 이규원 아나운서1부장, 한상권 아나운서2부장, 임수민 한국어연구부장, 그리고 팀장으로 최시중, 태의경, 신성원, 황정민, 김태규, 장웅 아나운서가 임명되었다.



상암시대 개막 9월 1일 신사옥 개관 기념식 열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방송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한 방송제작 환경 정착에 앞장서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30여 년의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8월 4일 새로운 '상암 MBC 시대'를 연 후 아나운서국은 8월 11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새 출발을 자축하며 의미있게 보냈다.

MBC 신사옥 개관 기념식이 9월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사옥 광장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MBC 어디가> 홍보 영상 유튜브 통해 공개

MBC 아나운서국이 상암 신사옥 이전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 <MBC 어디가>를 '언어운사 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여의도 사옥 외관과 뉴스센터 등을 배경으로 MBC의 얼굴인 아나운서들이 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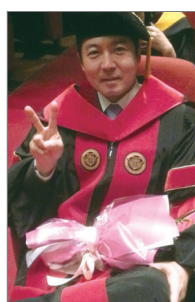
장웅 한국어연구팀장 아르헨티나 출장 한글학교 교사 교육



장웅 아나운서가 재외동포재단과 KBS 한국어연구회가 주최한 재외동포 한글학교 교사 교육을 위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다녀왔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에콰도르, 볼리비아 한글학교 교사 70명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우리말 퀴즈로 진행되었다.

신동진 아나운서연합회장 경희대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신동진 아나운서연합회장이 8월 20일 경희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박사과정을 시작해 수료 후 5년간 논문 집필 끝에

취득한 것이다. 이번 학위의 주제는 <TV시사 토론프로그램이 방청객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 - MBC 100분 토론을 중심으로>이다.



8시 뉴스 앵커에 정미선 아나운서 박선영 아나운서 미국 연수로 하차

8시 뉴스 앵커를 맡았던 박선영 아나운서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테마 연수를 가게 되었다. 박 아나운서는 9월 중으로 미국으로 떠나

6개월간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7월 21일부터 정미선(사진) 아나운서가 바통을 이어 받았다.



배성재 아나운서 K리그 유소년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배성재 아나운서가 8월 12일 K리그 유소년 발전 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배 아나운서는 2012년에 이어

K리그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축구 게임인 'EA 스포츠 FIFA 온라인 3'에 중계 출연료를 기부한 것이다.



김준호 아나운서 스포츠 중계방송 투입



김준호 아나운서가 성남과 전북의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경기를 통해 8월 9일 스포츠 중계 방송에 정식 입문, 성남의 주말 홈 6경기 중계를 맡는다.

유진영 아나운서 육아 휴직 후 복귀



유진영 아나운서가 지난해 7월 출산으로 인한 육아 휴직을 마치고 9월 22일 복귀한다. 유 아나운서는 <명불허전> 진행과 <뉴스M>의 앵커로 활약했다.



다채로운 여름 휴가 이야기

박재홍, 김현정 앵커 대신 <뉴스쇼> 진행

김현정 앵커의 여름휴가 동안 <뉴스쇼>를 대신 진행했다.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준비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필원 장마철에 독도 방문 성공

장마기간인 7월 23일 기적으로 독도 접안에 성공! 막상 독도 땅을 밟아보니 그 감격이 대단했다고 한다.

이명희 진도 팽목항 다녀와

'기다림의 버스'를 타고 무박 2일간 세월호 참사의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다녀왔다. 남겨진 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잊혀져가는 소중한 희생을 되새기게 한 여행이었다고 한다.



송정훈 자전거로 남해안 일주

남해안을 자전거로 일주하고 까맣게 타서 돌아왔다. <웰빙 다이어리> 진행자답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졌다고 한다.

'투르드 코리아 2014'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전 구간 방송

OBS가 6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펼친 국제도로사이클대회 <투르드 코리아 2014>를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전 구간을 방

송해 관심을 모았다. 김준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매일 1시간 당일 구간 경기의 주요 장면과 총결산까지 9회에 걸쳐 방송했다.



대체 휴일제로 인해 일주일간 추석 특별 생방송 실시

처음 시행되는 대체 휴일제로 인해 9월 5일부터 11일까지 추석 특별 생방송을 실시했다.

일주일간 귀성·귀경객에게 생생한 교통 정보 제공은 물론 전국 각지로 명절을 보내러 가는 사람들의 설렘과 우리 이웃의 즐거운 모습을 전하며 평년보다 긴 연속 생방송을 진행했다.

일주일간 귀성·귀경객에게 생생한 교통



김성윤 아나운서 극동방송 브랜드 파워 책임지는 홍보팀 팀장 발령



김성윤 아나운서가 미국 연수에서 돌아와 홍보팀 팀장으로 새 출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과 친근해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

도록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김 팀장은 1995년 입사해 <사랑의 뜰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등을 진행하고 '2011한국아나운서대상' 라디오 진행상, '2013한국아나운서대상' 장기범상 등을 수상했다.



객원 황진하 아나운서 공개 통과해 입사

2014년 tbs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통해 황진하 아나운서가 정식으로 tbs의 가족이 되었다.

3년여간 tbs의 객원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황진하 아나운서는 현재 tbsFM <4시를 잡아라>를 진행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함께한 행복한 5일



PBC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맞아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생방송 중계와 특집 와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교황의 모든

일정을 소개했다. 매일 생방송 중계와 더불어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124위 미사> 등으로 구성된 이번 특집방송은 김현주, 지승신, 박성호(사진), 김부궁 아나운서가 맡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낮, 저녁으로 편성한 종합구성 프로그램 <교황 방한 특별 생방송>은 김빛나, 김지현, 김슬에 아나운서가 진행했고, 조한규, 신의석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제작과 뉴스를 맡아 한마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정에 동참했다.



<BBS 뉴스> 8월부터 FM 라디오로 전국 동시방송



BBS는 불교계 소식을 TV와 라디오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8월 1일부터

<BBS뉴스>(진행 : 김형기, 박지혜 아나운서)를 BBS TV와 FM 라디오(서울 101.9 MHz)로 전국동시방송을 시작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BBS TV를 통해 1일 3회 방송되던 불교종합뉴스 <BBS 뉴스>를 더 많은 불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한 것이다. BBS TV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와이드 불교문화뉴스를 이제 오전 7시 라디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 알림 |

축하합니다

- 김나진(MBC), 김혜지(tbs) 10월 9일 명동성당에서 혼인
- 신미정(OBS) '사랑해도 될까요'의 작곡가 심현보와 9월 20일 혼인
- 표영준(MBC) 9월 13일 장남 주원 군 혼사
- 정현정(KBS 전주) 8월 30일 혼인
- 강수정(전 KBS) 8월 25일 득남
- 최지은(tbs) 2009년 첫째아들 이어 8월 16일 득남
- 손정은(MBC) 7월 22일 득남

조의를 표합니다

- 박옥배(CBS) 선교협력국 국장 8월 21일 모친상
- 고성균(전 KBS) 장모상, 이소연(전 KBS) 7월 16일 모친상
- 박서정(KBS 춘천) 7월 12일 부친상
- 김연선(KBS 대전) 6월 25일 장인상
- 오영실(전 KBS) 6월 15일 시부상

수고하셨습니다

- 권혁화 8월 26일 MBC 정년퇴직
- 지영서 6월 30일 KBS 정년퇴직

- 박영만 7월 31일 SBS 정년퇴직
- 서현진 7월 2일 MBC 퇴사

고맙습니다

9월 10일까지 입금 순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맹관영(전 KBS) 50만 원



반주원(전 MBC) 10만 원



전진영(전 KBS) 10만 원

초대석

우전禹田 맹관영(전 KBS) 대한민국서예문인화원로총연합회 회장

방송인을 넘어 종합예술인으로 또한 인생

지난 5월 말 '대한민국 서예문인화 원로총연합회' 회장이 되신 것, 축하합니다!

심적으로 부담이 큼니다. 한국미술협회, 서예협회, 서예가협회, 서도협회 소속 65세 이상의 초대작가 모임으로 2006년 만들어진 단체인데,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이번에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지요.

서예와 문인화는 누구에게 배우셨나요?

붓글씨를 잘 쓰신 선친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필법 등 기본기를 익힌 셈입니다. 그리고 이당以堂 김은호 선생과 함께 활동하신 충남 공주 출신 석연石淵 이경배 선생이 피난 차 낙향해 제 고향인 온양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셨어요. 좋은 스승을 만난 덕분에 소질을 계발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도 꾸준히 붓은 놓지 않았고, 아나운서 할 때도 주변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림 선물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정식으로 사사師事한 스승이 없으니 공모전에 출품할 엄두도 못 냈었지요.

아나운서 퇴직 후에 예전부터 해왔던 솜씨를 살려 1997년에 개인전을 열고 서예와 문인화 작업을 선보였는데, 그 때 와서 보신 조수호 선생 등 원로 대가분들이 국전 출신이 아닌데도 감사하게도 초대작가로 추대해주셨어요. 2008년에 제2회 개인전을 열었고, 현재 한국문인화협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문고도 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선비의 다섯 가지 기본이 '시詩, 서書, 화畫, 금琴, 기棋'예요. 그래서 거문고도 익히자 싶어 1970년대 초 국립국악원의 거문고 강습에 지원해 황득주 선생에게 정식으로 배웠지요.

일주일에 세 번씩 7년간 다니며 정악부터 한갑득류 산조까지 마쳤습니다.

선배님이 전에 성우와 교사도 하셨다면요?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6.25 후유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 처지였는데, 담임선생님의 권면으로 어렵사리 대학 문을 열었어요. 처음 전공은 연극영화였는데 성균관대 국문학과로 옮겨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음대생들을 제치고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으니 음악적 재능은 있었던 것 같아요.

2학년(1960년) 때는 CBS 방송국 성우 시험에 합격해 당대 원로 배우인 김승호, 최무룡, 장민호, 복혜숙 씨 등과 친구 또는 부부가 되어 보기도 하고, 선배 성우인 구민, 주상현, 김성원, 고은정, 정은숙 씨 등과도 드라마를 여러 편 했습니다. 1961년엔 MBC 1기 성우 모집에 합격해 활동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1965년 ROTC 1기 육군 소위로 예편한 뒤 상명여고 교사가 되어 2년 반 동안 근무했는데, TBC에서 아나운서 모집이 있다는 방송 예고를 듣고는 응모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 유쾌하고 구수한 맹관영 선배와 만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양현민 아나운서



우전 作 복수식 Ⅲ : 제멋대로 설치면 매화 즐기건만 꽃송이는 양전히 매달린 게 신통하네

아나운서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1958년 고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하고 낙담해 있던 나를 위해, 누님이 라디오 한 대를 사주셨어요. 방송 듣는 게 유일한 낙이던 그 때 미국의 소리방송(VUNC)에서 장기범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를 듣고 그분의 솜사탕 같은 목소리에 매료되었지요. 또 황우겸 아나운서의 <스타탄생>과 임택근 아나운서의 <아마추어 쇼> 공개방송을 들으며 반한 나머지 '나도 목소리는 타고 났으니

만드시 아나운서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1967년 첫 번째 응시에 다행히 합격해 TBC(동양방송) 아나운서 4기로 입사했고 1997년 KBS에서 정년퇴직했습니다.

어떤 방송을 진행하셨나요?

TBC에선 <마이크 초점>, <카메라의 눈>, <카메라 배경>, <동물의 세계>, <인간만세> 등 라디오와 TV의 내레이션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1980년 TBC가 막을 내리던 11월 30일 마지막 뉴스를 전하기도 했지요.

1980년 언론통폐합으로 KBS에 와서는 <FM 가요무대>, <흥겨운 한마당>, <가요 반세기> 그리고 DBS에서부터 인기 공개방송이던 전영우 선배님의 <유쾌한 응접실>, 최계환 선배님이 진행하던 <장수무대>, 정도 600년 기념 <서울야화> 등 공개방송이나 매일 DJ 프로를 정년 3개월 전까지 진행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 방송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국장일에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하관식 실황> 중계방송입니다. 자그마치 50여 분이 넘는 하관식 실황중계방송은 우리 방송 역사상 유례가 없던 지라, 순서나 용어 등 아는 이가 없어, 혼자 계속 멘트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용케도 해낸 자신에게 스스로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아웅산 순국> 국민장 때 17분의 실황 중계방송도 저에게 배당이 돌아와 진땀을 흘렸었죠.

그리고 1992년 'LA 폭동'으로 교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을 때 <LA 교민 위문공연> MC를 맡아 미국에 처음 가서 동기생인 권윤기, 나동숙 아나운서와 TBC 후배 홍우창 아나운서를 만나 그랜드캐니언, 유니버설 스튜디오 관광 등 옛정을 나누고 교민들과 함께 눈물 흘렸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100세 시대엔 한 사람이 적어도 4개에서 7개의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선배님이야말로 선두주자이신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하게 되었지만 아나운서실이 제일 그림고, 작품이나 방송이나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해요. 둘 다 실력을 쌓아야 하고 기본이 충실해야 하니깐요.

물론 아나운서는 다재다능한 게 당연한데, 다만 우리의 품위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어느 프로그램을 맡든지 폭넓은 지식과 번뜩이는 재치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인기 있는 방송만 좇을 게 아니라 가치 있는 방송에 욕심을 내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길 바랍니다.

글 / febc 양현민 아나운서

2011년에 이어 제2회 개인전 개최 박찬숙(전 KBS) 부회장



10월 22일(수)부터 28일(화)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박찬숙의 시선 - 물결, 숨결'이란 제목으로 제2회 개인전을 연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11년 11월 인사동에서 물을 주제로 첫 번째 사진전을 연 바 있다.

원주 한라대 산학협력단 교수로 임명 지영서(전 KBS)



9월 1일부터 강원도 원주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점 교수로 임명되어 스피치, 취업 면접 실기 등을 가르친다. 1979년 TBC에 입사한 지 회원은 2004년 KBS 한국어팀 초대 팀장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태동시켰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를 지냈다.

조선일보에 '위안부 용어의 부당성 지적' 이후재(전 KBS)



8월 13일자 조선일보에 '일본군 성노예 표현이 옳다'는 글을 기고한 후 많은 독자들로부터 일제강점기의 만행을 미화하고 숨기려는 일본의 속내를 꿰뚫었다는 격려 전화와 메시지를 받았다. 이 회원은 국제PEN클럽 한국본부 회원, 한국언론인협회 이사, 시인으로 활동 중이다.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연주회 사회 신은경(전 KBS)



8월 13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 연주회 사회를 보았다. '세종 꿈나무 오케스트라'는 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이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 청소년을 위해 2010년 창단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초대 DJ 이성화(전 TBC) 회원 Zoom-in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초대 DJ



‘그녀는 방송계의 진정한 인간문화재라 불렸다’

방송 개시 50주년 기념 ‘리멤버 50’ 행사에 출연

국내에서 현재까지 방송 중인 최장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정답은 동양방송(TBC) 라디오의 전신인 라디오서울(RSB) 개국 프로그램으로 1964년 5월 9일 시작된 KBS 해피FM(수도권 106.1MHz)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이하 ‘밤그대’)〉이다. 지난 8월 21일 오후 서울 양재동 THE-K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밤그대’ 50주년 기념 리셉션과 콘서트 ‘리멤버 50’이 열렸다. 현 DJ 임지훈과 함께 40여 명의 역대 DJ 중 이성화, 황인용 회원과 송승환, 유열이 초대되어 진행 당시 상황과 일화 등을 들려준 이 날, 초대 DJ 이성화(75세) 회원에게 관심이 모아진 것은 당연지사였다.

글 / 황인우(전 KBS) 편집장



〈밤을 잊은 그대에게〉 50주년 공개방송에서 이성화 초대 DJ가 소개되자 황인용 아나운서가 정중히 맞이하고 있다.

셨대요. “참 잘한다 싶어 눈여겨보았는데, 나중에 동양방송 TV 개국요원으로 와 보니 이성화 아나운서는 벌써 라디오에서 대활약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국내 최초의 심야방송 기획 시 DJ 선정이 관건이었을 텐데요.

제 자랑 같아 쑥스럽지만, 연극 연출가 오사랑 선생이 제 목소리를 두고 ‘5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당시 잡지 ‘아리랑’의 아나운서 인기순위 조사에서 제가 1위를 차지할 때였지요. 게다가 애드리브가 뛰어나다고 소문나 PD들이 생방송을 하게 되면 저부터 찾곤 했으니, 음성, 인기, 순발력이 캐스팅 요인이랄까요?

문제는 통행금지인데, 김현 PD가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테니 걱정 말고 하자.”고 해선뜻 응했지요.

첫 방송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디오서울 스튜디오가 있는 태평로 1가 신문회관 옆 건물에서 첫 방송을 했어요. 대본 없이 청취자와 전화 연결해 가요, 팝송 등 희망곡을 틀어주었는데, 레코드를 찾으려간 보조 PD가 바로 오지 않으면 대화하며 시간을 끌어야 했지요.

자정부터 1시까지 생방송을 마치고 관훈동 집에 갈 때면 네온사인도 없는 깜깜한 거리에 제가 탄 방송국 지프 한 대만 움직였던 게 어제 일같이 떠오르네요.

지금도 제 귀에 예전에 들었던 ‘밤그대’ 시그널뮤직이 생생합니다.

‘시바의 여왕’, 참 좋은 곡이지요. DJ 프로그램에서 시그널뮤직이 매우 중요한데, 그 곡은 프로듀서들이 많은 곡을 듣고 의논해서 고른 거라고 기억합니다. 밤늦은 시간, 라디오와 벗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따뜻함,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제목과 시그널뮤직 그대로 50년간 변함없이 우리의 밤 시간을 함께해준 것이지요.

당시의 사회상은 어떠했나요?

우리나라가 몹시 힘겨울 때, 방송이 고단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라디오는 따뜻한 진실을 담고, 정서와 정서를 잇는 매체니까요. ‘밤그대’가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는데 프리랜서 DJ 최동욱 씨가 맡으면 서부터 청년문화 성격이 부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70년, 연말에 프로그램이 정비되며 아나운서인 제가 다시 방송을 맡아 이듬해 가을 개편까지 팝송 대신 세미클래식과 건전가요를 틀며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 뒤 다시 원래 형식으로 바뀌어 DJ가 가수 양희은과 서유석, ‘밤그대’ 일등 공신인 황인용 아나운서와 송승환 등으로 이어졌지요.

〈가요톱10〉 연출자였던 김태기 PD가 선배님을 일컬어 ‘방송계의 진정한 인간문화재’라고 표현했던데요.

그 후 선배님의 방송생활은 어떠했나요?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TBC의 〈가로수를 누비며〉 MC 등 공개방송을 주로 맡았습니다. 사실 많은 PD들이 저와 일하기를 원하다 보니 한 프로그램을 오래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도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1972년 말에 결혼했고, 아이들은 자라는데 가정살림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 1975년 12월 31일에 사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염기철 PD가 다시 불러 프리랜서로서 〈가로수를 누비며〉 리포터로 활동하다가 언론통폐합을 기해 1980년 말에 방송을 그만

두었지요.

선배님은 블로그(<http://blog.naver.com/unjena55>)도 운영하며 재능기부도 하시고, 요즘도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 그만두고 싶 때도 사회를 보는 감각 등은 여전했지요. 그러다 다문화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싶어, 모든 일에 말이 첫 번째인데 말의 전문가로서 다문화인들을 위해 우리말 회화를 알려주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집 그리워’, ‘코리아 정들었어요’ 등 가사를 쓰고 작곡가 정풍송 씨가 노래를 만들어 음반까지 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은 관악FM(100.3MHz)에서 2년째 이주여성들을 위해 우리말을 가르치는 〈굿모닝 세상의 아줌마들〉 토요일 우리말 회화 방송 ‘노래 속에 말 속에’를 진행하며 지냅니다. 바른말실천시민협의회 이팔용(전 KBS) 회장과 이혜옥(전 KBS) 씨도 출연하고 있지요.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과 위로와 힘을 주고, 말은 음절과 목소리의 크기, 단어에 따라 좋고 싫은 인상을 남깁니다. ‘말이 갖는 위력’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1967년 3월 잡지 ‘아리랑’이 수여하는 독수리상 여자 아나운서상 수상 후 찍은 취재 사진

감회가 새로우셨어요!

50년이란 마이크와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1964년 당시와 그 날이 하나로 압축된 느낌이었어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선배님은 언제 방송에 입문하셨나요?

1959년 4월 15일 개국한 국내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인 부산 MBC(HLKU) 공채 시험에 합격해 개국방송을 했었지요.

그 후 방송 실력을 인정받아 1962년 12월 MBC(HLKV) 개국때 서울로 올라왔고 다시 라디오서울(HLKC) 개국요원으로 스카우트되어 1964년 3월 18일 입사했어요.

지금 이야기지만, 박종세 고문님이 KBS 시절인 1959년 부산에 야구 중계하러 갔다가 제가 해운대에서 공개방송 진행하는 것을 보

2002년 시작한 수채화로 첫 개인전 열어 안주희(전 MBC)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서울 인사동 조형갤러리1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1977년 입사, 〈장학퀴즈〉를 진행했던 안주희는 2002년

그림을 시작해 2008년 부쓰 개인전 후 그룹전에 참여해왔으며 2009년 경향미술대전 수채화부문 특선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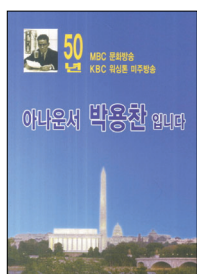
KBS 〈아침마당〉 SBS 〈좋은 아침〉 출연 이계진(전 SBS) 부회장



7월 17일 KBS ITV 〈아침마당〉 목요일 특강에 출연해 ‘손주 돌보니 삼대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7월 29일에는 SBS TV 〈좋은 아침〉에 출연해 최근의 일상과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소개했다.

자서전 ‘아나운서 박용찬입니다’ 출간 박용찬(전 MBC)



‘아나운서 박용찬입니다(우삼)’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다.

박 회장은 1961년 CBS에 입사한 이래 부산 MBC, 목포 MBC 아나운서, 서울 MBC 라디오국 PD, 원주 MBC 방송부장을 거쳐 미국으로 이민, 1980년부터 워싱턴미주 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광주(전 KBS) 회원 별세



7월 16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1966년 KBS에 입사, 1968년 울산 MBC 이직 후 1982년 KBS로 복귀해 사업부장, 출판부장, 심의위원 등을 지내고 1998년 정년퇴직했다.

다도와 서예에 조예가 깊은 ‘천상선비’로 KBS 사우회 서화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동정

www.huepark.co.kr

NAVER

분당추모공원휴

가
까
이
모
시
는
것
이

최
고
의

孝

업
그
다.

강남 20분, 분당 5분



하늘이 내린 고귀한 영혼의 안식처 - **분당추모공원 휴**

- ▶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추모원(운영 안전성, 영속성 법으로 보장)
- ▶ 국내 유일의 대규모 봉안당(실내 납골당), 봉안담(야외 납골당) 병설 추모원
- ▶ 국내 유일의 대규모 주차건물 설치(200여대 동시주차)
- ▶ 사통팔달의 탁월한 거리 접근성(서울 강남 20분, 분당 5분)
- ▶ 명당 중의 명당 능평리에 위치(능평리는 왕의 능을 모실만한 명당을 뜻함)
- ▶ 수목장·가족납골묘 조성중



‘납골당’은 2005년 5월 25일 한국산업규격(KS) 표준에 의거, ‘봉안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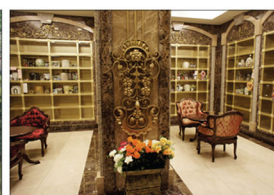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4



아름다운 야경



200여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주차건물



호텔식 봉안당(실내 납골당)



자연과 함께하는 봉안담(야외 납골당)